

# 5世紀 新羅의 對百濟關係와 相呼 認識

鄭雲龍 (高麗大 考古美術史學科 教授)

## 목 차

- I. 序言
- II. 5世紀 初盤 新羅와 百濟의 友好 摸索
- III. 5世紀 中 · 終盤 新羅와 百濟의 軍事同盟
- IV. 5世紀 新羅와 百濟의 相呼 認識
- V. 結語

## I. 序言

일반적으로 신라와 백제 관계는, 5세기 前半<sup>1)</sup> 있었던 나제동맹에 기초하여 6세기 中葉에 이르기까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고구려의 압력에 대응하는 신라와 백제의 동맹 관계는 그 성립 시점에 대한 이해는 물론, 동맹의 전 기간 동안 동일한 보조를 취한 것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sup>2)</sup>

본 발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5세기 신라와 백제의 관계를 단순한 관계사적 시각에서 벗어나, 양국의 서로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고구려를 매개 변수로 놓고, 신라와 백제가 각각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나제동맹을 결성하였는지를 해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그러한 이해를 전제로 할 때, 우리는 나제동맹에 임하는 신라와 백제의 기본 자세에 대한 파악도 좀 더 정치하게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 경우 5세기 신라와 백제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나제동맹의 결성과 그의 유지라는 큰 틀에서 전개되었다. 그러나 나제동맹의 결성 시점은 기왕의 학계에서 이해되던 433년 보다는, 455년을 주목하고자 한다. 아울러 그러한 동맹의 결성은 백제의 입장에서 더욱 필요하였으며, 신라는 당시 고구려의 압력 아래 놓여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신라의 입장에서 고구려의 압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극적 입장을 갖고 나제동맹에 임하였다고 판단된다.

1) 이 발표문에서 5세기를 시기 구분하는 용어로는 初盤 · 中盤 · 終盤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아울러 初盤의 경우는 433 · 434년까지, 中盤은 475년까지, 終盤은 그 이후의 시기를 지칭한다. 그리고 前半 또는 後半이라는 표현은 한 세기를 각각 50년씩 임의로 구분하는 어휘로 사용하였다.

2) 이에 대한 논의는 鄭雲龍, 「羅濟同盟期 新羅와 百濟 關係」 『白山學報』 46, 白山學會, 1996. 6. 및 「『三國史記』 交聘 記事를 통해 본 羅濟同盟 時期의 再檢討」 『百濟研究』 44, 忠南大 百濟研究所, 2006. 8. 참조.

이러한 입장에서 신라와 백제의 관계 및 상호 인식을 고찰할 경우, 기왕의 연구 성과와는 다른 결론의 도출이 예견된다. 나아가 5세기 나제동맹 기간 동안 수행된 동맹군의 군사 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라와 백제는 어떠한 이유에서 동맹군을 동원하였는지에 대한 구명도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 II. 5世紀 初盤 新羅와 百濟의 友好 摸索

삼국 사이의 접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4세기 이후, 신라와 백제 관계는 고구려라는 매개 변수를 사이에 놓고 전개되었다. 신라의 경우 3세기 중엽 고구려의 침입을 받았으나 방어에 실패하여<sup>3)</sup> 결국 고구려에 結和使를 파견하게 되었다.<sup>4)</sup> 이처럼 신라와 고구려 사이에 있었던 최초의 접촉은 신라가 고구려의 무력적 우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 이후 4세기 말까지 신라와 고구려의 접촉은 『삼국사기』에 별도로 기록되지 않고 있다. 다만 4세기 후반 신라가 前秦에 사신을 파견하였는데,<sup>5)</sup> 이때 신라 사신이 前秦에 갈 수 있었던 것은 고구려를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이해된다.<sup>6)</sup>

이후 신라는 고구려의 강성함을 인식하고, 伊滄 大西知의 아들 實聖을 고구려에 인질로 보내었다.<sup>7)</sup> 아울러 「광개토왕릉비」를 통해 볼 때, 399년에 신라는 왜의 침공을 받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고구려에 군사 원조를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400년에는 왜의 침공을 받는 신라를 고구려가 구원해주는 상황이<sup>8)</sup> 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을 거치면서, 신라의 고구려에 대한 외교적 예측도는 더욱 심화되었다.<sup>9)</sup>

이즈음 백제는 『삼국사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근초고왕(346~375) 때에 이르러 신라와 적극적인 교섭을 시도하고 있었다.<sup>10)</sup> 당시 백제는 고구려와 일진일퇴의 공방

3) (245) 冬十月 高句麗侵北邊 于老將兵出擊之 不克 退保馬頭柵 …… (『三國史記』卷2 新羅本紀2 助賁尼師今 16年).

4) 『三國史記』卷2 新羅本紀2 沾海尼師今 2年(248).

5) (381年) 遣衛頭入苻秦 貢方物 苻堅問衛頭曰 卿言海東之事 與古不同 何耶 答曰 亦猶 中國時代變革 名號改易 今焉得同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3 奈勿尼師今 26年). 이 기사를 통해 볼 때, 당시 삼국(海東)의 정세는 커다란 변혁기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내용은 鄭雲龍, 「5~6世紀 新羅 · 高句麗 關係의 推移 - 遺蹟 · 遺物의 解釋과 關聯하여 -」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15, 新羅文化宣揚會, 1994. 2, 41쪽 참조.

6) 金載元 · 李丙燾, 『韓國史』(古代篇), 乙酉文化社, 1959(1965版), 401쪽.

7)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 3 奈勿尼師今 37年(392).

8) 「廣開土王陵碑」 永樂 9年(己亥) 및 10年(庚子).

9) 鄭雲龍, 「5~6世紀 新羅 · 高句麗 關係의 推移 - 遺蹟 · 遺物의 解釋과 關聯하여 -」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15, 新羅文化宣揚會, 1994. 2, 44~49쪽 참조.

10) (366) 春三月 百濟人來聘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 3 奈勿尼師今 11年).

(366) 春三月 遣使聘新羅 (『三國史記』卷24 百濟本紀 2 近肖古王 21年).

(368) 春 百濟遣使 進良馬二匹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 3 奈勿尼師今 13年).

(368) 春三月…… 遣使新羅送良馬二匹 (『三國史記』卷24 百濟本紀 2 近肖古王 23年).

단 위 기사에서 「백제본기」의 ‘送’이라는 표현이 「신라본기」에는 ‘進’으로 표현되어 있다. 「신라본기」의 이러한 표현은 당시 신라의 백제에 대한 일방적 인식의 산물 또는 바람일 뿐, 실질적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한 설명은 鄭雲龍, 「羅濟同盟期 新羅와 百濟 關係」 『白山學報』46, 白山學會, 1996. 6, 98쪽 참조.

전을 벌이면서<sup>11)</sup> 가야 방면으로의 적극적 진출을 꾀하고 있었다.<sup>12)</sup> 따라서 신라로서는 백제의 활발한 군사 활동에 의구심을 갖거나, 가야 방면으로 진출해 오는 백제의 군사적 팽창에 상당한 경계심을 가졌으리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백제는 신라에 대한 우호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신라의 반발을 무마하고자 거듭해서 사신을 파견한 것이다.<sup>13)</sup>

그러나 신라와 백제의 이러한 우호는 373년 백제 禿山城主가 300인을 이끌고 신라로 투항하는 사건에<sup>14)</sup> 의해 결렬되었다. 이때 백제 국왕의 표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시까지 신라와 백제는 형제와 같은 우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독산성주가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에 대한 문책을 우려하여 신라로 투항한 것으로 이해되고<sup>15)</sup> 있듯이, 이즈음 백제 백성들의 불안은 고구려와의 잦은 전쟁에 따른 戰禍와 민생의 피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sup>16)</sup>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신라는 고구려의 도움을 받아 前秦에 사신을 파견할 수 있는 관계로 진전된 것이라 보인다. 이때 고구려는 백제를 주로 공격하였다. 특히 고구려 광개토왕(391~413)은 백제 漢水 이북의 10여 성을 빼앗은 다음, 백제 北邊의 주요 지역인 關彌城을 빼앗았다.<sup>17)</sup> 고구려의 지속적인 공격에 속수무책이었던 백제는 腆支를 倭에 보내어 볼모로 삼기도 하였다.<sup>18)</sup> 그러나 고구려와의 공방전은 백제 민생에 커다란 타격을 주어, 결국 兵役을 못이긴 백성들이 신라로 많이 도망하여 民戶의 쇠잔을 초래하였다.<sup>19)</sup>

4세기 후반의 이러한 상황에서 삼국은 5세기를 맞게 되었다. 5세기 삼국 관계, 특히 고구려의 군사적 압력을 직접적으로 받아야 하는 백제와, 그러한 고구려의 군사적 압력으로 인하여 외교적 예측도가 점차 심화되어 가던 신라는 결국 고구려의 압력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5세기 초반의 삼국 관계는 결국 신라와 백제가 서로 우호를 모색하는 것이 자국의 실리를 도모하는 길이 되었던 것이다.

5세기 초반 신라와 백제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료는 아래의 사료 가]이다.

사료 가] ① (403) 秋七月 百濟侵邊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 3 實聖尼師今 2年)

秋七月 遣兵侵新羅邊境 (『三國史記』卷25 百濟本紀 3 阿辛王 12年)

- 
- 11) 근초고왕 · 근구수왕대 고구려에 의해 야기된 麗 · 濟 사이의 잦은 전쟁은 『三國史記』 「百濟本紀」 369 · 371 · 375 · 376 · 377年 등에 보인다.
- 12) 김현구는 『日本書紀』卷9 神功 49年(수정연대 : 369년) 加羅 7國 平定 기사를 백제가 卓淳을 거점으로 하여 가야 방면으로 진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金鉉球, 『大和政權의對外關係研究』, 吉川弘文館, 1985, 184~210쪽 및 「『神功紀』 加羅七國 平定記事에 관한 一考察」 『史叢』 39, 高大史學會, 1991, 6, 131쪽.
- 13) 鄭雲龍, 「羅濟同盟期 新羅와 百濟 關係」 『白山學報』 46, 白山學會, 1996. 6, 98쪽.
- 14) (373) 百濟禿山城主 率人三百來投 王納之 分居六部 百濟王移書曰 兩國和好 約爲兄弟 今大王納我逃民 甚乖和親之意 非所望於大王也 請還之 答曰 民者無常心 故思則來 數則去 固其所也 大王不患民之不安 而責寡人 何其甚乎 百濟聞之 不復言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 3 奈勿尼師今 18年).
- 15) 盧重國, 「4~5世紀 百濟의 政治運營」 『韓國古代史論叢』 6, 韓國古代社會研究所, 1994. 5, 173쪽.
- 16) 鄭雲龍, 「羅濟同盟期 新羅와 百濟 關係」 『白山學報』 46, 白山學會, 1996. 6, 99쪽.
- 17) 『三國史記』卷25 百濟本紀 3 辰斯王 8年(392).
- 18) 『三國史記』卷25 百濟本紀 3 阿莘王 6年(397).
- 19) (399) 秋八月 王欲侵高句麗 大徵兵馬 民苦於役 多奔新羅 戶口衰減 (『三國史記』卷25 百濟本紀 3 阿莘王 8年).

- ② (427) 移都平壤 (『三國史記』卷18 高句麗本紀 6 長壽王 15年)
- ③ (433) 秋七月 百濟遣使請和 從之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 3 訥祗麻立干 17年)  
秋七月 遣使入新羅請和 (『三國史記』卷25 百濟本紀 3 毗有王 7年)
- ④ (434) 春二月 百濟王送良馬二匹 秋九月 又送白鷹 冬十月 王以黃金明珠 報聘百濟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 3 訥祗麻立干 18年)  
春二月 遣使新羅 送良馬二匹 秋九月 又送白鷹 冬十月 新羅報聘以良金明珠  
(『三國史記』卷25 百濟本紀 3 毗有王 8年)

사료 가]-①은 전쟁의 발발 원인이나 결과가 전하지 않고 있으나, 백제가 신라의 변경 지역을 선제 공격한 것이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당시 백제는 373년 독산성주의 신라 투항 이후 신라와 외교적 단절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에 덧붙여 고구려와 잦은 공방전은 민생의 피해로 이어지면서, 399년에 백제 백성들이 신라로 집단 투항을 하기도 하였다. 독산성주의 신라 투항 직후 백제가 독산성주의 송환을 요청하였듯이, 399년 백성들의 집단 이주 시에도 백제는 자신의 백성들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아마 신라는 이때에도 독산성주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백제 백성들을 귀환시키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사료 가]-①과 같은 백제의 신라에 대한 공격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전쟁은 아마 신라의 방어로 인하여 백제측의 공격 의도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백제 阿莘王(392~405) 말기에 있었던 사료 가]-①의 사건을 전후로 하여,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백제 대외관계 기록은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辰斯王(385~392) 때에만 고구려 · 말갈과 7회의 공방전이 수행되었음을 전하고 있다. 또 아신왕 때에는 4회의 전쟁과 함께, 2회에 걸친 정벌 계획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신왕은 태자 腆支를 왜국에 인질로 보내어 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왜국에서 귀환 후 아신왕을 이어 국왕으로 즉위한 腆支王(405~420)은 즉위 직후부터 東晉 · 倭 등과 외교 관계를 긴밀하게 수행하였다. 아울러 毗有王(427~455) 또한 즉위 이후 왜 · 宋과 사신을 주고받으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를 통해 본다면, 비록 단기간의 변화상이기는 하지만, 진사왕 · 아신왕 당시 고구려와 치열한 공방전을 주고받았던 백제는 사료 가]-①의 신라 침공을 기점으로 고구려와의 직접적인 교전이 중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전지왕과 비유왕의 시기는 백제가 주변 국가들과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면서, 외교적으로 고구려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려 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결국 사료 가]-①에서 신라 침공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지 못하자, 백제는 기존의 대외 정책을 대폭 수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구려와의 직접적인 교전보다는 주변 국가들과의 우호 증진을 통해 고구려에 대한 외교적 압력을 가중시키는 정책을 채택한 것으로 정책의 전환이 있었던 것이라 판단된다.

그런데 이때 고구려는 사료 가]-②에서 볼 수 있듯이, 427년에 長壽王(413~491)이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다. 고구려의 평양 천도는 중앙 귀족에 대한 牽制策임과<sup>20)</sup> 동시에

20) 徐永大, 「高句麗 平壤遷都의 動機 -王權 및 中央集權의 支配體制의 強化과정과 관련하여-」 『韓國文化』 2, 서울大 韓國文化研究所, 1981. 12, 126~128쪽.

遼河以西線을 지향하는 과감한 西進政策의 전개 과정에서 배후의 불안 요인으로 성장하는 신라와 백제에 대한 공세적 방어 조처를 취한 것이다.<sup>21)</sup> 따라서 고구려와의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던 백제의 입장에서는 신라와의 우호 관계 형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그 즈음의 백제는 중국의 여러 왕조와 긴밀한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다. 아울러 당시의 신라는 고구려에 외교적으로 예속되어 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신라와 백제는 평양 천도로 자신들을 위협하는 고구려에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을 것이다. 특히 백제의 경우는 고구려에 대한 봉쇄전략의 일환으로, 또 신라는 자국의 성장·발전에 제약 요소로 작용하던 고구려의 압력을 배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호 간의 우호 관계 성립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던 것이라 보인다.<sup>22)</sup>

그러한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사료 가]-③·④이다. 일반적으로 가]-③·④는 5세기 初盤 신라와 백제 사이에 형성된 동맹을 보여주는 자료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5세기 후반까지 경상북도 내륙지방과 동해안 방면의 신라 영토에까지 고구려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었으며,<sup>23)</sup> 449년에 건립된<sup>24)</sup> 「中原高句麗碑」에는 신라 영토 내에 자국의 幢主를 주둔시키고 있는 고구려 국왕이 신라 국왕에게 의복을 하사하는 내용이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신라와 고구려의 불평등 우호관계를 고려한다면 433년에 신라가 백제와 군사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또 450년까지 고구려 자신이 신라와의 관계가 매우 돈독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sup>25)</sup> 사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433년의 교빙을 나제동맹 성립으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sup>26)</sup>

이 시기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는 아래의 사료 나]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사료 나] ① (413) 秋八月 雲起狼山 望之如樓閣 香氣郁然 久而不歇 王謂是必仙靈降遊 應是福地 從此後 禁人斬伐樹木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 3 實聖尼師今 12年)

② (417) 及實聖還爲王 怨奈勿質己於外國 欲害其子以報怨 遣人 招在高句麗時相知人 因密告 見訥祗則殺之 遂令訥祗往 逆於中路 麗人見訥祗形神爽雅 有君子之風 遂告曰 爾國王使我害君 今見君 不忍賊害 乃歸 訥祗怨之 反弑王 自立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 3 訥祗麻立干 卽位年)

21) 朴京哲, 「高句麗 軍事戰略 考察을 위한 一試論 -平壤遷都以後 高句麗軍事戰略의 志向點을 中心으로-」 『史學研究』 40, 韓國史學會, 1989. 6, 56쪽.

22) 梁起錫, 「5~6世紀 前半 新羅와 百濟의 關係」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5, 新羅文化宣揚會, 1994. 2, 77~79쪽 참조.

23) 鄭雲龍, 「5世紀 高句麗 勢力圈의 南限」 『史叢』 35, 高大史學會, 1989. 6, 27쪽.

24) 任昌淳, 「中原高句麗古碑 小考」 『史學志』 13, 檀國大 史學會, 1979. 11, 57쪽.

金貞培, 中原高句麗碑의 몇 가지 問題點」 『史學志』 13, 1979. 11 ; 『韓國古代史論의 新潮流』, 高麗大 出版部, 1980, 165쪽. 中原高句麗碑의 건립 연대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는 鄭雲龍, 「中原高句麗碑 研究의 몇 가지 問題」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논문집』 6, 2005. 11, 163~165쪽 및 「中原高句麗碑의 建立 年代」 『白山學報』 76, 2006. 12, 156~160쪽 참조.

25)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 3 訥祗麻立干 34年(450).

26) 발표자는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나제동맹의 성립은 455년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鄭雲龍, 「羅濟同盟期 新羅와 百濟 關係」 『白山學報』 46, 白山學會, 1996. 6, 104쪽 및 「『三國史記』 交聘記 『事를 통해 본 羅濟同盟 時期의 再檢討』 『百濟研究』 44, 忠南大 百濟研究所, 2006. 8, 202~203쪽 참조.

- ③ (418) 春正月 親謁始祖廟 王弟卜好自高句麗 與堤上奈麻還來 秋 王弟末斯欣自倭國逃還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 3 訥祗麻立干 2年)
- ④ (424) 春二月 遣使高句麗修聘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 3 訥祗麻立干 8年)  
春二月 新羅遣使修聘 王勞慰之特厚 (『三國史記』卷18 高句麗本紀 6 長壽王 12年)

「광개토왕릉비」에서 볼 수 있듯이, 400년에 왜의 침공을 받은 신라가 고구려의 도움으로 그를 극복한 이후, 신라는 고구려에게 외교적으로 종속된 우호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료 나]-①은 경주 낭산에서 상서로운 조짐이 나타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고구려의 과도한 압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신라 사회의 움직임이 이러한 징조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러한祥瑞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는 사료 나]-②에서 볼 수 있듯이, 신라의 왕위 계승 문제에까지 그 영향력을 개입시키고 있었다. 즉 기왕의 연구에서 많이 지적되어 온 바와 같이, 신라 눌지왕의 즉위에는 고구려의 영향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료 나]-③처럼 눌지왕은 즉위 직후 고구려에 인질로 보내졌던 자신의 동생 卜好를 귀환시킬 수 있었다. 미사흔이 왜국에서 돌아올 때는 왜의 감시를 피해 도망쳐야 했지만, 복호의 귀환은 고구려의 우호적 입장에서 귀환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고구려 장수왕(413~491)의 양해 아래 복호의 귀환이 이루어졌던 것이라 보인다. 이는 역시 기본적으로는 고구려와 신라의 우호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신라의 입장에서 볼 경우 복호의 귀환을 요구할 만큼 양국 관계에서 신라의 발언이 점차 강화되어 간 것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 고구려의 영향 아래 즉위한 눌지왕의 입장에서, 고구려에 인질로 가 있던 자신의 동생을 귀환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신라 정치 사회에 자신의 입지를 좀더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인다.

이후 신라는 사료 나]-④처럼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어 교빙 관계를 강조하였다. 이때 동일한 사안을 전하는 고구려본기에는 고구려가 신라의 사신을 후대하면서 그 노고를 위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구려의 입장에서 신라의 사신을 후대하였다고 특기한 것은 그 이전의 양국 관계에 비하여 사료 나]-④의 신라 사신 파견이 고구려에게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이라 보인다. 즉 당시의 양국 관계가 400년을 전후한 시기의 그것과 차이가 있었으며, 고구려는 신라의 그러한 움직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신라 사신을 후대하면서 양국 관계의 유지에 신경을 썼던 것이라 보인다.

그러나 결국 사료 가]-②처럼 고구려의 평양 천도가 이루어지자, 신라와 백제는 고구려에 대항하는 상호간의 우호 관계 성립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5세기 초반의 신라와 백제 관계는 사료 가]-①에서 보이는 403년의 交戰 이후, 고구려의 압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양국 상호 간의 필요에 의해 433년에 우호 관계의 성립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5세기 초반은 신라와 백제가 상호 우호 관계의 형성을 모색하던 시기였다. 결국 양국의 우호는 5세기 中盤 실질적인 동맹 관계로의 돌입과 함께, 5세기 後半 성공적인 방어동맹의<sup>27)</sup> 역할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

27) 나제동맹의 성격에 대한 논의는 그리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한 실정이다. 김병주는 나제동맹의 성격을 '防禦同盟'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攻擊同盟'·'攻守同盟'과 分別하여 파악하고 있다. 金秉柱, 「羅濟同

다.

### III. 5世紀 中 · 終盤 新羅와 百濟의 軍事同盟

433년의 우호적인 교섭 이후 신라와 백제는 고구려의 압력에 공동 대응을 모색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앞 章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백제는 腆支王(405~420) 즉위 직후부터 東晉 · 倭 등과 긴밀한 외교 관계를 수행하였으며, 久爾辛王(420~427)을 거쳐 毗有王(427~455) 또한 왜 · 宋과 사신을 교환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비유왕이 신라와 우호 관계를 성립한 것이다. 이처럼 5세기 前半 백제는 고구려와 직접적인 교전을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외교 관계를 통해 고구려를 압박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에 신라는 사료 나]에서 볼 수 있듯이 고구려에 외교적으로 종속되어 있었다. 신라의 입장에서 이러한 종속 관계의 탈피를 위해 백제와의 우호 관계 성립이 요구되었던 것이라 보인다. 그러나 사료 다]에서 알 수 있듯이 신라는 여전히 고구려에게 종속적인 관계에 놓여 있었다. 다만 그 와중에도 신라 사회에서는 고구려에 대한 미묘한 변화 모습이 찾아진다.

사료 다] ① 五月中 高麗太王祖王令○新羅寐錦世世爲願如兄如弟 …… 募人三百 新羅土內幢主 (中原高句麗碑 : 449년 건립)

② (450) 秋七月 高句麗邊將獵於悉直之原 何瑟羅城主三直出兵 掩殺之 麗王聞之怒 使來告曰 孤與大王修好至歡也 今出兵 殺我邊將 是何義也 乃興師侵我西邊 王卑辭謝之 乃歸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 3 訥祗麻立干 34年)

(440) 新羅人襲殺邊將 王怒將舉兵討之 羅王遣使謝罪 乃止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 6 長壽王 12年)

③ (454) 八月 高句麗侵北邊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 3 訥祗王 38年)

秋七月 遣兵侵新羅北邊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 6 長壽王 42年)

④ (455) 冬十月 高句麗侵百濟 王遣兵救之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 3 訥祗王 39年)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5세기 前半 고구려와 신라의 우호 관계가<sup>28)</sup> 강화되기 시작한 것은 광개토왕 10년(400) 倭의 침입을 받는 신라를 고구려가 步騎 5萬으로 구원해 주는 것에서 기인된다. 이때 신라 국왕이 고구려의 구원에 대한 사의 표시를 위하여 직접 고구려로 가서 朝貢論事를 함으로써 양국의 朝貢關係가 성립된다.<sup>29)</sup> 결국 광개토왕 때나 장수왕 초년까지만 해도 고구려는 신라에 대해 일방적 우위에 있으면서 양국의 우호 · 화친관계를 ‘屬民’인 신라가 고구려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규정 · 인식하고 있었

盟에 관한 研究」 『韓國史研究』 46, 1984. 9, 43~45쪽 참조.

28) 5세기 前半 신라와 고구려 우호 관계의 배경은 盧重國, 「高句麗 · 百濟 · 新羅사이의 力關係變化에 대한 一考察」 『東方學志』 28, 延世大 東方學研究所, 1981. 9, 59쪽 참조.

29) 金貞培, 「高句麗와 新羅의 영역문제 -順興地域의 考古學자료와 관련하여-」 『韓國史研究』 61 · 62, 1988. 9, 9쪽.

다.<sup>30)</sup> 이는 고구려 왕권의 自尊的 천하관의 산물로<sup>31)</sup> 이해된다.

그러나 사료 다]-①의 「중원고구려비」는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如兄如弟’로 표현하고 있다. 고구려 우위의 표현이 지배적인 「중원고구려비」에서 양국관계가 ‘兄弟’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5세기 初盤과는 달리 麗·羅關係에 변화가 있음을 암시해 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즉 사료 다]-①은 5세기 中盤 당시의 상황이 신라에 대한 고구려의 일방적 우위가 아님을 웅변해 주는 것이라 본다.<sup>32)</sup>

이러한 신라 사회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나타내 준 것이 바로 사료 다]-②이다. 悉直의 들판에서 사냥을 하던 고구려 邊將을 신라 何瑟羅 성주인 三直이 살해한 이 사건은 신라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향유해 온 고구려에게 대단한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비록 사료 다]-①에서 양국 관계가 ‘형제’로 인식되었다 할지라도, 사료 다]-②를 보면 고구려 국왕은 여전히 양국 관계를 ‘修好至歡’이라 강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는 신라의 극진한 사과를 받아들여 전면적인 전쟁으로까지 사태를 확대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신라의 입장에서 고구려와의 전면전은 상당한 부담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사료 다]-②에서 볼 수 있듯이, 고구려의 공격 시도를 무마한 신라로서는 사료 다]-①에 보이는 신라 영토 내 고구려 幢主의 존재를 그대로 容認한 채, 사료 다]-③·④와 같은 군사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즉 신라 영토 내에 있었던 고구려 당주의 군사적 규모는 독자적으로 전투력을 구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료 다]-③·④에서의 신라는 당주의 주둔을 容認한 채 변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국지적인 고구려의 선제 공격에 대한 응전 및 백제를 매개로 한 고구려에 대한 저항 의지 표명 수준의 군사 행동만을 취한 것이다.<sup>33)</sup> 그러나 동맹 체결의 명백한 실체가 없는 현실에서는 위 사료 다]-③·④에서 보이는 일련의 상황이 궁극적으로 나제동맹의 등장이라 이해된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자는 나제동맹의 성립 시기를 사료 다]-④에 근거하여 455년으로 보는 것이다.

이 이후 『삼국사기』에는 500년까지 신라와 고구려 사이의 전쟁 기사가 7회, 백제와 고구려 사이의 전쟁 기사가 4회 기록되어 있다. 이 11회의 전쟁 기록 중 나제동맹군의 공동 참전은 5회이다.<sup>34)</sup> 이제 사료 라]를 통해 5세기 中盤의 나제관계를 보여주는 기록을 살펴보기로 하자.

사료 라] ① (468) 春 高句麗與靺鞨襲北邊悉直城 秋九月 徵何瑟羅人年十五已上 築城於泥河泥河一名泥川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 3 慈悲王 11年)

(468) 春二月 王以靺鞨兵一萬 攻取新羅悉直州城 (『三國史記』卷18 高句麗本紀 6 長壽王 56年)

② (469) 秋八月 遣將侵高句麗南鄙 冬十月 葺雙峴城 設大柵於青木嶺 分北漢山城士卒戍

30) 「廣開土王陵碑」第 1面 8~9行 참조.

31) 梁起錫, 「4~5C. 高句麗 王者의 天下觀에 對하여」 『湖西史學』 11, 1983. 6, 34쪽. 盧泰敦, 「5世紀 金石文에 보이는 高句麗人의 天下觀」 『韓國史論』 19, 서울대 국사학과, 1988. 8, 43쪽.

32) 鄭雲龍, 「5世紀 高句麗 勢力圈의 南限」 『史叢』 35, 高大史學會, 1989. 6, 6쪽.

33) 鄭雲龍, 「羅濟同盟期 新羅와 百濟 關係」 『白山學報』 46, 白山學會, 1996. 6, 104쪽.

34) 반면에 500년 이후 550년 즈음까지는 백제와 고구려 사이에만 10회의 교전이 기록되어 있다. 이 중 나제동맹군의 공동 군사행동은 단 1회만이 보인다. 확연하게 500년을 기점으로 고구려의 주요 교전국이 신라에서 백제로 바뀌고 동시에, 나제동맹 또는 동맹군의 군사행동에도 커다란 변화상이 간취된다.



之(『三國史記』卷25 百濟本紀 3 蓋鹵王 15年)

- ③ (475) 九月 王帥兵三萬侵百濟 陷王所都漢城 殺其王扶餘慶 虜男女八千而歸 (『三國史記』卷18 高句麗本紀 6 長壽王年 63年)

(475)·秋九月 麗王巨璉帥兵三萬來圍王都漢城 王閉城門 不能出戰 麗人分兵爲四道夾攻 又乘風縱火 焚燒城門 人心危懼 或有欲出降者 王寤不知所圖 領數十騎出門西走 麗人追而害之 (『三國史記』卷25 百濟本紀 3 蓋鹵王 21年)

·蓋鹵在位二十一年 高句麗來侵圍漢城 蓋鹵嬰城自固 使文周求救於新羅 得兵一萬迴 麗兵雖退 城破王死 …… 冬十月 移都於熊津 (『三國史記』卷25 百濟本紀 3 文周王 卽位年)

사료 다]-④에서 나제동맹군의 군사 활동 결과, 고구려를 물리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신라나 백제에게 커다란 자신감을 심어준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신라는 464년 경주에 주둔하고 있던 고구려군을 몰살시켰다.<sup>35)</sup> 따라서 그 즈음 충청북도 中原 지역에 강력한 군사 거점을 유지하고 있던 고구려는 사료 라]-①과 같이 신라의 북단 군사 거점인 悉直(三陟)을 공략하여 신라를 응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때 고구려의 군사 행동은 실패로 끝난 것으로 파악된다.<sup>36)</sup>

신라에 대한 고구려의 군사 행동이 실패로 끝나자 사료라]-②에서 보듯이, 백제는 5세기 들어 최초로 고구려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감행한다. 비록 전쟁의 승패나 전과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으나, 백제의 이와 같은 군사 행동은 455년에 고구려의 공격을 나제동맹군의 공동 방어로 대처하고, 468년 고구려의 공격을 받은 신라가 자체 방어력으로 그를 극복하자 동맹국으로서의 신라라는 배후 세력을 두게 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sup>37)</sup> 그러나 백제의 이러한 군사 행동은 신라와 백제를 교차 침공하면서 前線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했던 고구려의 군사 행동 방식에<sup>38)</sup> 따라, 사료 라]-③에서 볼 수 있듯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이즈음 신라는 백제의 목시적 양해 아래 470년에 三年山城(報恩)을 축조하여<sup>39)</sup> 고구려가 경영하는 中原 거점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백제는 최소한 4세기 후반 이래 5세기 후반까지 청주 지역을 중요 군사 거점으로<sup>40)</sup> 삼고 중원으로부터 이어지는 고구려 세력의 확산을 방어·견제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는 사료라]-③에서 보이듯 3萬의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백제 漢城을 공략함으로써 중원 거점의 안정성을 提高시키려 한 것이다.<sup>41)</sup>

35) 『日本書紀』卷14 雄略 8年 2月.

36) 「고구려본기」에는 이 작전에서 고구려가 실적을 공취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사료 라]-①에서 알 수 있듯이, 신라가 9월에 何瑟羅(江陵) 丁夫를 동원하여 남한강 상류 지역인 泥河에 축성을 하고 있음으로 보아, 강릉·삼척 일원은 신라의 北端 군사 거점으로 온존해 있었다고 보인다. 이에 대한 설명은 鄭雲龍, 「5世紀 高句麗 勢力圈의 南限」 『史叢』 35, 1989. 6, 11쪽 참조.

37) 鄭雲龍, 「羅濟同盟期 新羅와 百濟 關係」 『白山學報』 46, 白山學會, 1996. 6, 107쪽.

38) 金瑛河, 「高句麗의 巡狩制」 『歷史學報』 106, 1985. 6, 47~50쪽 참조.

39) 『三國史』卷3 新羅本紀 3 慈悲王 13年.

40) 청주 신봉동 고분군에서 馬具와 武具가 다량으로 출토됨으로써, 이 지역이 백제의 중요 군사 거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 忠北大 博物館, 『清州 新鳳洞 百濟古墳發掘調查報告書 -1982年度 調査-』·『清州 新鳳洞 百濟古墳群 發掘調查報告書 -1990年度 調査-』·『清州 新鳳洞 古墳群』 참조.

이러한 고구려의 군사 행동에 대하여 신라 救援軍이 적기에 도착하지 못함으로써 신라와 백제의 방어동맹은 효과적인 군사 행동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료 라]-③은 신라의 구원군 파견 영향으로 고구려가 漢城으로부터 퇴각하였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비록 한성의 심각한 파괴로 인하여 수도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곤란해졌을지라도, 웅진 천도 이후에도 여전히 한성 지역은 백제의 관할로 남아 있었다고 보인다. 즉 임진강 유역의 고구려 관방 시설과 연결되는 한강 北岸 아차산·흥련봉·용마산·망우산·시루봉 등지의 고구려 보루는<sup>42)</sup> 한성 공략 이후 고구려군이 철수하는 와중에서 고구려의 전방 기지로 활용되었으며, 都城이 위치하고 있던 지금의 서울 강남 지역은 백제의 통제 아래 놓여 있었다고 보인다. 이로써 고구려와 백제는 지금의 서울 한강을 두고 남북으로 대치하게 되었다.<sup>43)</sup>

웅진 천도 직후 백제는 文周王(475~477)의 동생으로 政事를 보필하던 內臣佐平 昆支가 사망하자 兵官佐平 解仇가 문주왕을 시해했으며,<sup>44)</sup> 이어 13세 된 三斤王(477~479)을 즉위시키고 軍國政事를 擅斷하던 해구가 大豆城을 근거로 謀叛을 꾀하다 실패하는 등<sup>45)</sup> 內憂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처럼 사료 라]-③에서 백제가 고구려에게 당한 패전과 웅진 천도는 백제 왕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함께 백제 중앙 정부 내에서 왕과 귀족 사이의 분열·갈등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백제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겨주었다. 따라서 이 시기 이후 신라와 백제의 관계도 이러한 입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사료 마] ① (481) 高句麗與靺鞨入北邊 取狐鳴等七城 又進軍於彌秩夫 我軍與百濟加耶援兵 分道禦之 賊敗退 追擊破之泥河西 斬首千餘級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 3 炤知麻立干 3年)
- ② (484) 秋七月 高句麗侵北邊 我軍與百濟合擊於母山城下 大破之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 3 炤知麻立干 6年)
- ③ (489) 秋九月 高句麗襲北邊 至戈峴 冬十月 陷狐山城(『三國史記』卷3 新羅本紀 3 炤知麻立干 11年)
- ④ (494) 秋七月 將軍實竹等 與高句麗 戰薩水之原 不克 退保犬牙城 高句麗兵圍之 百濟王牟大 遣兵三千 救解圍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 3 炤知麻立干 16年)
- ⑤ (495) 秋八月 高句麗圍百濟稚壤城 百濟請救 王命將軍德智 率兵以救之 高句麗衆潰 百濟王遣使來謝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 3 炤知麻立干 17年)
- ⑥ (496) 秋七月 高句麗來攻牛山城 將軍實竹出擊泥河上 破之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 3 炤知麻立干 18年)

41) 鄭雲龍, 「羅濟同盟期 新羅와 百濟 關係」 『白山學報』 46, 白山學會, 1996. 6, 108쪽.

42) 白種伍, 「南韓地域 高句麗 關防體系」 『先史와 古代』 26, 韓國古代學會, 2007. 6, 301쪽.

43) 鄭雲龍, 「한강 유역 회복과 관산성 전투」 『泗泚都邑期の 百濟』,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127~130쪽 및 「신라와의 관계」 『百濟의 對外關係』,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110~111쪽 참조. 반면에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漢山城’을 한성시대의 것과 웅진시대의 것으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양기석은 웅진시대 한산성은 현재의 충남 지역에 위치한 산성으로 이해하고 있다. 梁起錫, 「5~6世紀 百濟의 北界 -475~551년 百濟의 漢江流域 領有問題를 중심으로-」 『博物館紀要』 20, 檀國大 石宙善紀念博物館, 2005. 12, 30~32쪽 참조.

44) 『三國史記』卷26 百濟本紀 4 文周王 3(477)·4年(478).

45) 『三國史記』卷26 百濟本紀 4 三斤王 卽位年(477)·2年(478).

⑦ (497) 八月 高句麗攻陷牛山城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 3 炤知麻立干 19年)

백제와는 달리 고구려에 의한 군사적 타격을 입지 않은 신라는 481년에 강릉 이북으로 보이는 비열성으로 진출하고 소지왕(479~500)이 순행을 한다.<sup>46)</sup> 소지왕의 비열성 순행은 신라가 강릉·삼척 일원의 군사 거점을 기반으로 해서 동해안선을 따라 고구려 영역을 잠식해 들어간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고구려는 동해안선을 따라 북진해 오는 신라의 군사 행동을 좌시하지 않았다. 고구려는 사료 마]-①에서 볼 수 있듯이 호명(청송) 등 7성을 공략하면서, 경주 부근의 미질부(흥해)까지 진군하여 신라를 압박하였다. 이에 고구려가 한성을 공략할 때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던 나제동맹군은 가야 세력까지 동원하여 공동 방어로 대처하였다.

당시 백제는 동성왕(479~501)의 재위 기간이었다. 동성왕은 그의 시호에서 보이는 의미와 함께, 국내 정치의 안정과 국방력 강화에 힘을 쏟은 왕으로서, 자신 또한 군사적으로 출중한 인물이었다고 보인다. 또 가야는 4세기 후반 이래 백제와 정치·외교적 관계를 맺고, 400년 광개토왕(391~413)의 남정으로 고구려의 군사적 위력을 경험한 바 있었기 때문에 백제의 주도로 나제동맹군의 군사 작전에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잔존해 있던 신라 영내의 고구려 당주 주둔지를 매개로 하여 파죽지세와 같이 신라 수도를 향하던 고구려의 군사 작전은, 충주를 거점으로 무리하게 연장된 공격로와 취약한 동해안 방면의 作戰線으로 인하여 위험 부담을 안고 있었다. 따라서 고구려의 이와 같은 군사 행동은 신라·백제·가야 연합군의 분산방어작전에 의하여 좌절될 수밖에 없었으며, 신라 영내에 세력을 부식하고 있던 고구려 당주 및 그 주둔지의 위축·축소를 감내해야만 하게 되었다.<sup>47)</sup> 이에 백제는 483년에 고구려와의 접경지인 한산성과 수도 웅진에서 田獵을<sup>48)</sup> 행하면서 고구려와의 전쟁에 대비한 군사훈련을 강화하였다.

한편 고구려는 사료 마]-②에 보이듯이 신라에 대한 재침을 단행했으나 나제동맹군의 공동 방어로 인해 모산성(진천)에서 큰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 연이은 동맹군의 승리는 백제와 신라 양국으로 하여금 고구려의 공세에 대응하는 나제동맹의 필요성과 유효성을 절감케 하였을 것이다. 특히 한성을 공파당한 경험을 갖고 있는 백제로서는 나제동맹의 위력을 재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동맹국의 결속 강화를 위하여 신라에 聘使를 파견하였다.<sup>49)</sup> 이러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486년에 신라는 삼년산성과 굴산성을 개축하고 백제는 우두성을 쌓아<sup>50)</sup> 충주를 거점으로 한 고구려에 대한 방비를 강화하였다.

이즈음 고구려의 공세는 사료 마]-③과 같이 일부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나제동맹군의 방어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처럼 방어동맹으로서의 나제동맹의 효과적 방어 활동은 백제와 신라 양국의 내정 안정에도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 특히 백제의 경

46)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3 炤知麻立干 3年(481).

47) 鄭雲龍, 「5世紀 高句麗 勢力圈의 南限」 『史叢』 35, 1989. 6, 13~14쪽.

48) 『三國史記』卷26 百濟本紀4 東城王 5年(483). 전렵이 갖는 군사 훈련으로서의 의미는 金瑛河, 「高句麗의 巡狩制」 『歷史學報』 106, 歷史學會, 1985. 6, 24~26쪽 참조.

49) 『三國史記』卷26 百濟本紀 4 東城王 7年(485).

50)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 3 炤知麻立干 8年(486) 및 卷26 百濟本紀 4 東城王 8年(486).

우 祥瑞의 상징 가화인 합영화를 헌상 받아 德治를 과시하면서, 소지왕(479~500)의 神宮 설치와 비견되는 의미를 갖는 天地祭의 시행으로 사상적 일체감을 조성하고, 政廳인 南堂에서 군신들에게 연회를 베풀어 국왕으로서의 위와 과시와 함께 국내 통치의 안정을 확고히 할 수 있었다.<sup>51)</sup>

그 결과 491년에 기근으로 인하여 백제 백성들이 신라로 도망가는 사건에도 불구하고, 백제는 나제동맹의 유지와 우호 관계의 강화를 위하여 493년 동성왕이 신라에 청혼하여 이찬 比智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sup>52)</sup> 나제동맹 전 기간을 통해 볼 때 소지왕과 동성왕의 시기에 동맹군의 활동이 가장 현저했다. 고구려에 대한 효과적 방어가 이 기간에 집중되고, 양국 사이에 결혼까지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보아 이때가 백제와 신라 사이 우호와 신뢰가 가장 돈독했던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백제·신라 양국은 사료 마]-④·⑤과 같이 고구려 세력의 군사적 파상 공세에 대하여 공동 방어로 대응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고구려의 군사 행동은 백제 한성 공략 이외에는 백제와 신라 연합군의 방어를 극복하지 못하고, 한반도 중부 내륙의 경우 진천 - 청천 - 조령선에서 전선이 정돈됨으로써 충주를 거점으로 한 백제·신라 전선의 확대에 실패하였다.<sup>53)</sup> 그나마 고구려가 위안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마]-⑥·⑦에서 볼 수 있듯이 신라 동해안 방면에 대한 군사적 진출을 기도하여 강릉·삼척 인근의 牛山城을 공략함으로써 신라의 북단 군사 거점을 위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신라의 우산성은 마]-⑥ 기사에 처음 등장하는 지명으로, 사료 라]-①에서 468년에 실적으로 진출하려는 고구려에 대비하고자 하슬라 백성을 동원하여 축성한 것인 듯하다. 따라서 우산성의 함락은 실직·하슬라가 고구려의 군사적 위협에 노출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때 백제의 구원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 지역이 백제로부터 원격지일 뿐 아니라, 고구려 충주 거점으로 인하여 백제 구원군의 교통로가 확보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직후 사료 바]는 위와 같은 신라와 백제의 우호적인 군사 동맹 유지와는 완전히 별개의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자료이다.

사료 바] (501) 七月 設柵於炭峴以備新羅 八月 築加林城 以衛士佐平苗加鎮之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 4 東城王 23年)

『삼국사기』 등의 사서에는 5세기 終盤 신라와 백제 관계에 변화가 있을만한 사건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료 바]는 백제가 7월에 신라에 대비하여 炭峴에 柵을 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8월에는 가림성(부여)을 축조하여 위사좌평 苗加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고 있다. 백제는 웅진 지역에 세력을 갖고 있던 집단으로 이해되는데,<sup>54)</sup> 이러한 인물로 하여금 지금의 부여 지역에 쌓은 산성을 관할토록 한 것이

51)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 4 東城王 11年(489).

52)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 4 東城王 15年(493) 및 卷3 新羅本紀 3 炤知麻立干 15年(493).

53) 鄭雲龍, 「5世紀 高句麗 勢力圈의 南限」 『史叢』 35, 1989. 6, 15쪽.

54) 강종원은 공주 수촌리 고분 축조 세력을 苗氏로 이해하고 있다. 이 백씨 세력이 漢城 被侵 이후 熊津 천도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강종원, 2005. 8, 「수촌리 백제고분군 조영세력 검토」, 『百濟研究』 42, 忠南大 百濟研究所, 52쪽.

다.<sup>55)</sup> 그렇다면 동성왕은 웅진에서 사비로의 천도를 계획하고 가림성을 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그에 1개월 앞서 신라에 대비하는 책을 탄현에 쌓았다는 것은 동성왕이 백제와 신라 관계에 이상 징후를 포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동성왕은 앞으로 나제동맹의 유지에 문제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신라에 대비할 목적으로 탄현에 책을 쌓음과 동시에 향후 보다 안전한 곳인 사비로의 천도까지 염두에 두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동성왕의 이와 같은 대비는 그 후 6세기 들어 백제가 고구려와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맹군으로서의 신라의 동참이 전혀 없었다는 점과도 비교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힐 수 없으나, 5세기가 끝날 무렵 신라와 백제의 관계에는 무엇인가 편하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의 이유가 웅진 천도에 따른 백제의 위축과, 동해안 방면을 따라 고구려 영역으로 진출하던 신라의 세력이 강릉·삼척 일원에서의 군사적 위축을 봄에 따라 향후 군사적 진출 방향을 백제 방면으로 옮기 고자 하는 때문인지는 좀 더 많은 고찰을 요하는 문제이다.

#### IV. 5世紀 新羅와 百濟의 相呼 認識

5세기의 삼국 관계는 전쟁과 평화적 교섭이 점철되는 상황이었다. 이 와중에 신라와 백제는 고구려라는 공동의 대상을 두고 서로 自國의 생존을 위해 노력해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신라와 백제가 각기 상대방을 어떻게 인식했는가 하는 것은 쉽게 파악되지 않는다. 앞 章에서 살펴 본 양국 관계, 그것도 고구려를 매개로 한 양국 관계의 전개 양상에서 일부의 분위기를 파악하여 서로에 대한 인식의 단초를 언급할 수 있는 정도이다.

앞 章에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삼국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4세기 말부터라 보인다. 특히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주목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이 경우 신라는 고구려와의 관계 시작이 외교적 도움에서 비롯되어 군사적 원조까지 받게 됨으로써 종속성이 심화되었다. 반면에 신라와 백제는 백제 독산성주가 300명을 이끌고 신라에 투항하는 사건으로 양국 관계가 단절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백제는 고구려와 지속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5세기 들어 신라와 백제는 고구려에 대한 외교적 예측도의 약화와 고구려의 군사적 압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실리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특히 백제는 고구려에 대한 외교적 압력을 가중시키는 정책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즈음 고구려는 그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는데, 고구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는 신라와 백제에 위협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여졌다. 결국 이러한 일로 인하여 433·434년에 백제와 신라의 우호가 성립되었다.

---

55) 사료 바]에 이어지는 내용 중에 그 해 11월 기사에는 昔加가 가림성주로의 부임을 꺼리어 병을 칭하고 사양하였음과, 국왕이 그를 허락하지 않았음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백가가 국왕을 살해한 것이다. 이러한 점 또한 백가가 웅진 지역에 세력을 갖고 있었음을 방증해 주는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신라와 백제는 고구려라는 변수로 인하여 서로를 필요로 한 셈이다. 신라는 자신의 성장·발전에 제약 요소로 작용하던 고구려의 과도한 압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백제는 고구려에 대한 외교적 봉쇄전략의 일환으로 서로를 필요로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양국 관계를 짚어볼 수 있는 별도의 자료가 눈에 띈다.

- 사료 사] ① (399) 秋八月 王欲侵高句麗 大徵兵馬 民苦於役 多奔新羅 戶口衰減 (『三國史記』卷25 百濟本紀 3 阿辛王 8年)
- ② (447) 秋七月 旱 穀不熟 民饑 流入新羅者多 (『三國史記』卷25 百濟本紀 3 毗有王 21年)
- ③ (491) 秋七月 民饑 亡入新羅者六百餘家 (『三國史記』卷26 百濟本紀 4 東城王 13年)

위의 사료 사]는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기록으로, 여타의 본기에는 전하지 않는 내용이다. 사료 사]-①은 백제 국왕의 고구려 침공 계획으로 인하여 兵馬의 징집 등에 고통을 받던 백제 백성들이 신라로 流亡을 한 것을 보여준다. 이때 백제의 戶口가 쇠잔할 정도로 많은 백성들이 신라로 이주한 듯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 앞서 같은 해 7월에 신라 또한 메뚜기의 피해를 크게 보았다.<sup>56)</sup> 물론 메뚜기의 피해를 본 신라의 지역과 役을 피해 신라로 달아난 백제 백성들이 간 곳이 동일한 지역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자연재해와 과도한 軍役은 백성의 입장에서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 백성들의 집단 이주는 사료에 보이지 않는다. 위의 사료 사]는 모두 백제의 사례이다. 결국 백제 백성들의 국가 귀속 의식이 신라 백성들의 그것보다 약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사료 사]-②·③도 마찬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신라와 백제 양국 사이의 상호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백제 백성들의 신라에 대한 인식이 신라 백성들의 백제에 대한 인식보다 더 우호적이었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양국 상호 간의 인식에 대한 논의도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나, 기왕의 연구 성과에 바탕을 둘 경우, 그것은 결국 양국 지배층의 인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료 사]를 통해 유추되는 것은 일반 백성들의 서로에 대한 인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라 보인다.

신라와 백제 사이의 상호 필요성에 의한 접촉은 결국 5세기 중반 효율적인 대고구려 방어전선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즈음 신라와 백제의 고구려에 대한 공동 방어는 궁극적으로 양국의 생존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신라와 백제는 서로 긴밀한 유대를 형성하면서 상대방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관계가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에 무엇인가 변화가 초래된 것이 5세기 중반이 상황이다.

이유는 명쾌하게 구명할 수 없지만, 사료 바]처럼 501년에 백제 동성왕이 신라에 대비하여 탄현에 柵을 구축하는 것은 아마도 475년 고구려의 漢城 공략에서부터 비롯된 신라에 대한 불신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경우 기왕의 연구에서 475년 당시 신라의 구원군이 백제 한성에 늦게 도착한 것은 수도를 공략당하는 백제를 도와 신라가 직

56)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 3 奈勿尼師今 44年(399).

접적으로 고구려와 대규모의 전쟁을 수행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참작된다.<sup>57)</sup>

결국 501년 이후 신라는 백제가 수행하는 고구려와의 전쟁에 동맹군으로 참전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신라는 가야 방면으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6세기 前半에 백제는 남해 연안의 동부 지역에서 강화되는 신라의 가야 진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왕에 백제가 세력 기반을 확보하고 있었던 가야 서부 지역에서의 기득권 강화에 주력하면서 신라에 대한 간접적인 견제책을 구사하였던 것이다.<sup>58)</sup>

물론 백제는 이러한 현상의 타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라와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즉 동성왕이 신라에 청혼하여 이찬 比智의 딸과 혼인을 맺은 것이<sup>59)</sup>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백제의 이와 같은 노력은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5세기 終盤의 신라와 백제 관계는 나제동맹의 군사 활동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고 싶은 신라와, 군사 동맹 관계의 유지 및 강화를 원하는 백제의 바람이 교차하고 있었던 것이라 판단된다. 즉 신라는 더 이상 백제와 공조를 취하지 않고 가야 방면의 진출 등 독자적인 대외 관계를 추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5세기 중반은 신라에 대한 백제의 필요성이 감소했던 반면, 백제는 여전히 신라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는 6세기 들어 고구려의 주 공격 방향이 백제를 향하게 되는 것과도 연관된다. 백제의 입장에서는 항상적인 위협 요소인 고구려를 고려할 때 더욱더 신라가 필요했던 것이다.

결국 5세기 신라와 백제의 상호에 대한 인식은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미묘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즉 5세기 初盤에는 고구려의 압력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라와 백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이르렀었다. 이때 양국은 상호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우호 관계의 성립을 모색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성립된 양국의 우호 관계는 결국 5세기 中盤 나제동맹의 성립으로 귀결되었으며, 해당 시기에 고구려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가 양국이 서로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던 상호 공존의 시기였다.

그런데 백제가 고구려에게 漢城을 공략당한 다음부터 신라의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즉 신라는 더 이상 나제동맹군으로 고구려와의 전쟁에 참가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신라의 입장은 특히 6세기 前半 들어 나제동맹군으로서의 의무를 도외시 하는 모습과, 아울러 그 시기 신라의 가야 진출 모습을 통해 유추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본다면 결국 나제동맹의 성립 및 동맹군의 군사 활동은 궁극적으로 자국의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 상호의 필요성이 강할 때 고구려에 대한 동맹군의 군사 활동은 효율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신라가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었을 때, 즉 자국 단독의 힘으로도 고구려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을 때, 신라는 동맹군의 입장을 저버리고 독자 노선을 택하였던 것이다.

결국 신라와 백제 양국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은 자신의 생존을 위한 국가적 필요성이

57) 金秉柱, 「羅濟同盟에 관한 研究」 『韓國史研究』 46, 1984. 9.

58) 정운용, 「6世紀 新羅의 加耶 併合과 그 意味」 『史叢』 52, 2000. 12, 10쪽.

59)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 3 炤知麻立干 15年(493) 및 같은 책, 卷26 百濟本紀 4 東城王 15年(493).

기준이 되어 작용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5세기 初盤 신라는 고구려의 외교적 압력 아래 놓여 있으면서도 백제와 유대 관계를 형성하였으며, 백제는 한반도 지역에서 고구려의 군사적 압력을 방어하고자 신라는 택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5세기 終盤에 나제동맹에 임하는 신라의 자세가 벌어지고, 궁극적으로 6세기 들어 신라가 동맹국으로서의 의무를 도외시하게 되었다. 이즈음 신라의 성장이 그러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였던 것인만큼,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신라와 백제의 상호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 V. 結語